

전시체제기 청년세대의 ‘조선적인 것’ 탐색 배경과 성격*

변 은 진**

머리말

Ⅰ. 청년세대의 특성과 일제 청년양성론의 괴리

Ⅱ. 내선일체와 민족 말살에 대한 위기의식

Ⅲ. ‘조선적인 것’ 탐색 노력의 성격과 한계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전시체제기에 청년세대가 ‘조선적인 것’을 탐색하게 된 배경과 이유, 성격 등을 검토한 것이다. 이 시기 청년세대의 특수성과 일제 측의 청년양성 담론 사이의 괴리, 이로 인해 청년세대 사이에서 내선일체론과 민족 말살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은밀한 저항’을 지속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조선적인 것’을 탐색할 때 주로 일본식 논리를 차용(借用)함으로써 그 안에 민족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주의·국수주의·전체주의 등 복잡한 성격과 한계를 배태하게 된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민족주의적 성격과 동시에 파시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평가되었던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하더라도 전시체제기에 청년세대에 의해 전개된 ‘조선적인 것’의 탐색 노력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드러났음이 확인되었다. 전시체제기에 일제 당국이 내선일체와 동화의 근거로 일본 민족 및 문화의 우수성과 조선민족의 저열함을 항상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민족적 자각을 한 청년세대의 일부는 민족의 계몽을 통한 ‘조선문화의 향상’을 중시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bdbdej@naver.com)

다시 말해서 이를 ‘독립의 선결문제’이자 독립 이후의 국가 경영을 위해서도 긴요한 문제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렇게 조선민족의 문화 수준 향상을 중시한 인식의 내면에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항의 공통 대상인 일제가 사라진 상황이 되면, 이는 또 다른 성격으로 발현될 잠재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주제어: 청년세대, 조선적인 것, 조선학운동, 내선일체, 민족말살

머리말

일제강점기 ‘조선적인 것’의 탐색과 그 지형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조선학’ 내지 ‘조선학운동’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주목해왔다. 최근까지도 이는 여러 학문 영역, 특히 국사학과 국문학의 주요 연구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¹⁾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서 조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이를 조선학운동이라는 실천행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선학’이라는 학문체제로 정립하려는 욕망의 분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식민지를 겪은 이후의 지식인 사회에서 이것이 주요한 학문적 관심으로 자리 잡은 것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²⁾

1) 대표적인 성과로 역사학에서는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혜안, 2007), 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엮음, 『1930년대 조선학운동 심층연구』(선인, 2015) 등이 있으며, 문학에서는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소명출판, 2007) 등이 있다.

2)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의 민족문화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탈식민화”라고 했다 한다(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푸른역사, 2017, 28쪽). 20세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전시체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허은은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한 바 있다. 총력전체제는 “첫째,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탈식민화와 문화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고리”라는 점, “둘째,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과 문화기획을 동아시아라는 단위로 확장하여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허은, 「20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과 식민주주의」, 『한국사연구』 150, 2010, 231-232쪽). 지극히 타당한 설명이다.

기존 연구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시야에 넣으면서도, 주로는 1930년대 초중반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인식과 활동에 집중되었다.³⁾ 그런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은, 중심 시기로는 흔히 표면상 조선학운동이 자취를 감춘 뒤인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중심 주체로는 지식인이 아닌 일반 청년학생층이다.⁴⁾ 일제의 파시즘 및 민족 말살의 공세에도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자 했던 청년세대 사이에서도 '조선적인 것'에 대한 탐색은 지속되었고, 여기에는 1930년대 조선학운동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다.⁵⁾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시체제기 청년세대의 인식과 활동에서 1930년대 조선학운동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성격상 공통점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보면, 전시체제기에 민족의식을 지닌 청년학생층과 소규모 비밀결사들에서⁶⁾ '조선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1930년대 조선학운동 자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거나 이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한 경우는 없었다. 당대에 친일 지식인으로 활동하여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던 이광수나 최남선에게 실망하거나 이들이 여전히 민족적 지식인이라고 오해한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주도했던 정인

3) 전체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지원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한말 일제초기의 국수적 민족문화 인식에서부터 1920년대 민족주의 민족문화론, 1930년대 민족주의 문화운동론과 민족문화까지 다루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도 전시체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4) 전시체제기 청년세대의 인식 형성과정과 특성에 대해서는 변은진, 『파시즘적 근대 체형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선인, 2013, 4장 4절(400-423쪽) 참조.

5) 위의 책, 520쪽. 여기서 '조선적인 것'이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서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6) 전시체제기에 국내와 일본에서 청년학생층 중심으로 결성된 소규모 비밀결사운동의 흔적은 대략 370건 정도가 발견되었다(변은진,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 독립과 해방, 건국을 향한 조선민중의 노력』, 선인, 2018).

보·안재홍·문일평 등의 이름을 거론한 적도 없다.⁷⁾ 따라서 1930년대 조선 학운동 자체가 전시체제가 청년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성격 면에서는 양자가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조선학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론이 대체로 그 운동 자체에 민족주의적 성격과 동시에 파시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처럼,⁸⁾ 전시체제가 청년세대의 ‘조선적인 것’ 탐색 과정에서도 이러한 양면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일제강점 이후, 특히 대다수는 3·1운동 전후에 태어나 1930년대 이후 침략전쟁과 파시즘체제가 강화해간 상황에서 교육받은 청년세대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중성이 표출되는 양상과 성격은 더 노골적이면서 복잡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것은 서구의 파시즘과 달리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이라 해도,⁹⁾ 전체주의의 일반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선전과 테러의 병행, 그리고 “절대 통제권을 소유하면 항상 선전을 교화로 대체”한다는¹⁰⁾ 특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7) 유일하게 정인보의 경우, 서울 중앙중학교 학생 중심의 ‘5인 독서회’(1940.10~1941.8)에서 1941년 7월 회합에서 김성수·송진우·백관수·정인보 등 조선인 저명인사의 국제정세관에 대해 알아보자는 언급이 있었다(위의 책, 90쪽). 이 역시 정인보의 조선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8) 대표적으로 이지원은 결론에서 “1930년대 민족주의 민족문화론은 한편으로는 일제의 파시즘 지배문화론의 일환으로 포섭될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반파시즘 저항 문화론으로서의 지향을 내포하며 분립하여 전개되어 있었다.”라면서 “결국 부르주아적 발전을 전망하며 파시즘적인 국가주의를 찬양하고 문화적·종족적 의미의 민족문화를 강조하였던 지식인들은 일제 말기 ‘현실국가’인 일본의 국가주의·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그 正體性을 해체시켰다.”라고 보았다(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373쪽). 또한 김병구도 “고전부흥의 기획은 한편으로 시대적 압력으로 인해 민족적 동일성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청되던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호명하여 절대화한 나머지 현실을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식민 지배의 논리로 귀착될 위험성을 함축하고 있었다는 이중적 의미망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김병구,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31-32쪽).

9) 山口定, 『ファシズム —その比較研究のために』, 有斐閣, 1979, 192-193쪽 참조.

10)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말하자면 실제로는 강압적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교화에 의한 다수의 ‘동의’라는 형식을 띠는 점에서, 이 시기 청년세대의 사상의식 형성과정 자체가 기성의 지식인들과는 달랐다. 그리고 이러한 ‘강요된 순종’의 결과로, 즉 “위험이 강하게 부과되는 경우 명시적인 동의와 순종이 겉으로는 우세할 지 모르나 은밀한 저항 역시 증가”한다는 주장처럼,¹¹⁾ 전시체제기 청년세대는 유연비어나 낙서·투서 등 각종 ‘불온 언동’과 소규모 비밀결사운동을 통해 저항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시체제기에 청년세대가 ‘조선적인 것’을 탐색하게 된 배경과 이유로, 이 시기 청년세대의 특수성과 일제 측의 청년양성 담론, 다시 말해서 조선인 청년 학생이 교육받은 ‘강요된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청년세대에게 민족 말살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은밀한 저항’을 지속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들이 이렇게 ‘조선적인 것’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주로 일본식 논리를 차용(借用)함으로써 그 속에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과 한계를 배태하게 된 점에 대해 살펴본다.

I. 청년세대의 특성과 일제 청년양성론의 괴리

일반적으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나름의 세대적 공통분모가 있다고 얘기된다. 전시체제기 청년세대의 경우 이는 둘로 구분되는데, 첫째

71-72쪽. 아렌트는 전체주의는 ‘강압’, ‘내적 강요’의 방식으로 사람을 ‘동원’하는데, “전체주의 정부가 안전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의지력을 작동시켜 그를 역사나 자연의 거대한 운동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275-276쪽).

11)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 은닉 대본』, 후마니타스, 2020, 194-195쪽.

는 일반적으로 청년기가 지닌 세대적 특성, 둘째는 일제의 침략전쟁이 진행되고 전시파시즘이 형성된 특수한 상황에서의 공통분모와 특성이다. 물론 현실의 청년세대에게 이 둘은 섞여서 존재했고 또 섞여서 표출되었다.

청년세대의 일반적인 특성을 논할 경우, 흔히 언급되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행동하는 진취적 기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식민지사회에서 청년세대의 진취적 기상은 적어도 식민체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타개책을 식민지화 이전이나 당대 사회보다는 발전된 사회상에서 구하고 이를 위해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중심에는 늘 청년운동이 자리잡고 있었다.

청년세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계층은 바로 학생층이다. 청년세대는 그 상당 기간을 교육받아야 하는 학생층으로 생활한다. 학생층은 상대적으로 문화적·의식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조건 아래 있어서, 사회나 민족의 공통 문제에 쉽게 자각하고 행동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주어진 사회적 여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의식을 다듬어갔다. 또한 이들은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민족차별에 기초한 교육정책, 교육 및 취업 기회의 불평등을 접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워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식민지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타파하고 독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까지 발전하여, 그 사상적 토대나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층은 상대적으로 엘리트층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일반 사회에 대한 미치는 파급력은 컸다. 하지만 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는 아직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미숙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의 특

성도 있다.

일제 당국 역시 학생층의 사상 동향은 “가장 민감하게 세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상운동의 침병”이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일제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층은 전체 인구의 1%이지만 치안유지법 위반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학생은 감수성과 뇌동성이 풍부하여 … 일단 민족적 반감을 야기할 경우 그 움직임은 상식을 벗어나는 태도”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불경죄’나 보안법 위반 사건은 일시적인 민족적 반감에서 비롯되지만, 학생층이 다수 참여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은 ‘악질 사상’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¹²⁾ 그러면서 이들의 “민족의식에 기초한 황민(皇民) 자각의 결여는 자유주의·개인주의적 관념에서 나온 소승적인 내선(內鮮) 대립 사상”이라고 보았다.¹³⁾

그런데 전시체제가 청년세대는 이러한 식민지의 일반적 조건 외에도 일제 전시 인력 동원의 최중심에 존재했다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조국이 아닌 타국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직접 전쟁터로 동원될 잠재적 존재였다. 조선총독부 통역관인 다나카 도쿠타로(田中德太郎)가 “조선의 청년은 일반적으로 체격이 강건하고 두뇌가 좋은 자가 많으므로 이를 훈련·도야하면 병(兵)으로 부끄럽지 않은 자가 속출하여, 당장은 아니라 해도 점차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라는 글을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을 비교하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12) 高等法院 檢事局, 『朝鮮刑事政策資料』, 1942,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9, 222쪽.

13) 「第85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4.8, 『太平洋戰下の朝鮮』I, 68쪽; 「第86回帝國議會說明資料」,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3, 204쪽.

14) 田中德太郎 述, 『朝鮮人ノ思想ト性格』, 朝鮮軍司令部, 1943.4.20., 2-18쪽(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大野綠一郎 관계문서 중).

일본인	조선인
정직·성실	부정직·불성실
사상이 단순, 관찰이 천박	사상이 복잡, 人心의 기미를 살피고 파악·조종이 교묘
동정심 많음	동정심 결여,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남에게 친절을 다하지 않음
의협심 풍부	타산적, 강자에 아첨·영합하고 약자는 고려하지 않음
感謝·報恩의念이 강	감사·보은의念 희박
忠君愛國의念 치열, 희생봉공의心 왕성	충군애국·희생봉공 결여
의무관념 강	의무관념과 책임관념 박약
悠久性 풍부, 天皇에 대한 신념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일시적·고식적
公共을 위해 私를 버리고 단결로 목적 달성에 노력	단결심 결핍, 會內會를 만들어 상호 암투
陽氣, 명랑·정직, 허세가 없음	陰氣, 책모적, 허세적
겸양·분수를 앎	겸양의 미덕이 적고 오만
公私 구별, 공정·청렴	公私 혼돈, 기강 문란의 풍습
敬信의念, 神의 실재 인정	敬信의念 희박, 오로지 儒敎에 심취하여 형식을 쫓음, 신앙심 없고 정신적 道義 관념 결여
우월감, 상대방 연구에 노력하지 않고 獨善心 강	상대방의 성격·신념을 알려고 노력
일반적으로 강하여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	비밀을 과장하고 누설하기 좋아함 의논을 좋아하는 性癖 의혹감 있고 시기심 강(유언비어)

당시 일제 측에서는 줄곧 일본민족의 우월성과 조선민족의 상대적 열등함을 설파하면서 일상적으로 위의 내용을 조선인에게 선전하고 세뇌하였다. 그런데 위의 내용으로 보면, 당시 ‘조선군’과 조선총독부 등 일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조선인, 특히 청년층은 도저히 ‘일본 군인’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로 보인다. 이러한 사상과 성격을 지닌 조선인

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늘 하루빨리 조선 청년을 황군(皇軍)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조선인의 병력동원을 언급할 때는 항상 조선 청년도 '훌륭한 황국신민'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모순을 범하였다.

총독부의 주장을 빌려 보면 “조선의 청년들은 조혼(早婚)으로 인해 청년 기라 할 만한 시기가 없고 따라서 일본의 청년단(青年團)과 같은 청년 수양 단체가 없었는데”, 만주침략 후인 1932년 9월부터 총독부에서 청년단 조직 및 지도에 관한 근본방침이 확립되면서 이러한 성격을 갖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한다.¹⁵⁾ 유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방학 중에는 조선장학회와 관계 부·현 협화회 등이 주최하는 이른바 ‘학생 하계 연성회(鍊成會)’에 참여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일본식 생활 및 유신(惟神)의 대도(大道)를 통해 일본정신을 파악시키고 황국신민의 긍지와 감격으로 대업익찬(大業翼贊)에 매진하는 전사(戰士)의 심신을 연성”시켰다.¹⁶⁾ 또한 조선인 학생은

15) 朝鮮總督府 情報課, 「朝鮮事情資料 第4號 '鍊成する朝鮮」, 1944,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 17, 725-736쪽. 이 청년단 방침은 1936~37년에 걸쳐 개정되었고, 1941년부터는 100만 단원으로 새로이 발족했다. 이에 전시체제기에 청년단은 14세 이상, 30세 이하의 전체 청소년층을 망라한 대중적인 관제 청년단체의 위상을 가졌다. 청년단에서는 단체 훈련과 개인 훈련을 했는데, 단체 훈련에서는 강습회·강연회·견학·도서교육 등을 통한 덕성(德性)의 함양, 직업지도, 체위 향상, 생활개선, 오락·취미 등을 했다(尹昌業, 『實踐上から見た青年團組織と經營』, 青年團社, 1939.6, 18-32쪽).

16) 朝鮮獎學會, 『夏季鍊成會狀況』, 1942.6~8, 3쪽. ‘연성(鍊成)’이라는 용어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 육성한다는 뜻으로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총력전체제’하의 모범적인 ‘인간형’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원래는 1935년 11월 일본 문부성에서 교학쇄신(敎學刷新)을 목표로 창출한 조어(造語)였는데, 1941년 3월 일본 내 ‘국민학교령’에서 규정된 후 종전 때까지 줄곧 전시체제기 교육의 최고 목표로 사용되었다(寺崎昌男·戰時下教育研究會 編, 『總力戰體制と教育－皇國民'鍊成'の理念と實踐』, 東京大出版會, 1987, 2-20쪽).

“생활양식의 차이나 도회 환경적 문화생활에의 유혹, 위험 미숙한 사상에의 함정” 등이 있으므로 이들을 ‘진정한 황국신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도야와 일상생활에서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⁷⁾ 만약 다수의 조선 청년이 이러한 교육과 교화를 받아 전시체제기에 완전한 ‘일본국민’, 즉 ‘천황의 신민’이라는 자각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다면, ‘조국 일본’을 위해 기꺼이 전쟁에 ‘참여(동원이 아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 청년 다수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 의식의 수준이 그렇지 않았음은 상식이다.

청년세대는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식민지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감을 덜 느끼면서 전쟁과 파시즘을 경험하였다. 일제의 파쇼적 교육과 훈련만을 강요받은 대다수의 청년 학생은 그동안 유지해온 조선인 일반의 의식에 내재된 반봉건적인 충효(忠孝) 사상이나 가족·공동체 인식, 즉 ‘조선식’의 인식을 ‘일본식’으로 전환하기를 요구받았다. 그리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하여 출세함으로써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요받았다. 물론 청년기의 일반적 특성상 대부분 출세에 대한 강한 욕망을 지니고 관심과 열정을 쏟기도 했고, 그 결과 일부 ‘성공’한 청년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좌절감을 맛보았다.

말하자면 청년세대의 이러한 욕망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겉으로는 ‘진정한 내선일체의 구현’이 늘 주창되었으나 조선인에게는 초등교육인 의무교육제조차 시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진학이나 취업에서도 일본인 학생과 차이가 나며 취업 후 봉급이나 승진에서도 늘 민족차별이 존재한다고 느꼈다. 일제 당국도 조선인 학생의 문제는 “취직이 가장 곤란하여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

17) 高山秀雄, 「内地在留學生指導に關する意見書」, 1941.1.7, 2-10쪽.

한 것이 큰 원인”이라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던 상황이었다.¹⁸⁾ 즉 조선인 청년학생층의 ‘황국신민으로의 성장’은 그 조건에서부터 모순과 한계가 있었다.

중등학교 이상 조선인 학생의 다수는 가장 원하는 직업이 관리였고, 실제로 법경과(法經科) 계통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75,000명 중 약 20%인 14,000명이 면학의 목적은 관리가 되는 것이라 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본 경시청의 에모토(榎本) 내선과장(內鮮課長)은 “조선인은 대체로 사대사상에 기초한 정치민족”이라며 비방하기도 했다.¹⁹⁾ 하지만 ‘정상적’인 근대화가 아닌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공업화만을 경험한 식민지 청년에게는 자신의 재능이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에게는 관리라는 직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비쳤을 것이다.²⁰⁾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했다 해도 관공리로 진출하는 길은 매우 좁았고, 전시체제기에 그나마 유사하게 진출한 곳이 각종 금융계 국책회사였다.²¹⁾

전시체제기 청년세대의 불만이 단지 교육이나 취업 문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청년기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등 식민지배와 전시체제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77, 1179쪽. 전시체제 이전에도 조선인 학생의 존재 기반은 매우 열악하여 중등학교에서는 “퇴학자가 속출”하였다(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1936, 283쪽).

19) 奈良縣警察部, 『居るぞ! 不逞鮮人』, 『警察叢書』 45, 1940.5; 荻野富扶 編,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12, 不二出版社, 1992, 3쪽.

20) 이는 ‘흥아(興亞) 인플레이’로 한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학생들이 실업 방면에도 관심을 가졌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관리에서 실업계로 - 城大 학생 기질을 충동』, 『京城日報』 1939.10.20).

21) 1923~41년 강경상업학교 조선인 졸업생의 취업 직종을 분석한 정연태의 연구에 따르면, 총 373명의 졸업생 가운데 33명만이 일반 관공서에 취업했다. 그 외에는 금융계와 동척 133명, 국내의 일반 회사 64명, 진학 10명, 사망이나 행불 또는 불명이 133명이었다(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 중등학교 입학부터 취업까지』, 푸른역사, 2021, 161쪽, <표 3-12> 참조).

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도쿄제국대학 졸업생조차 인텔리로서의 지적인 욕구와 그 사회적 실현이 조선인이라는 현실 속에서 단혀 있다고 느꼈다.²²⁾ 청년세대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김윤주(金潤疇)라는 학생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는 “학생은 본래는 문화의 매개자로서 존경을 받아왔다는 금일에는 마치 반역자같이 가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면서, 그 이유는 사회구조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창조적이고 통일적인 지능이 아니라 기술적 지능과 사무적 능력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 생활은 신구(新舊) 문화의 매개자로서 각자 자기 부문에서 신문화를 창설하는 데 필요한 지능을 도야하는 것이 그 사회적·역사적 사명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지능을 저하시키고, 특히 만주침략 이후 1930년대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서 회의심과 이상주의적 열정을 빼앗고 모든 지적 탐구의 원동력을 억압하면서 공리주의적 학생만을 산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하였다.²³⁾

일제가 요구하는 생활방식과 의식을 적극 받아들인 소수의 청년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들조차도 은연중에 그러한 체제와 문화에 익숙해진 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은 파쇼적인 학교 교육과 관제 청년단체의 통제, 장시간의 근로동원과 병력동원이 가중되면서, ‘내가 왜 일제의 전쟁과 천황을 위해 목숨을 걸어

22) 도쿄제대를 졸업하고 조선저축은행 평양지점에 취직한 황도연(黃道淵)은 “실사회에 나와서 공부니 연구니 한다는 것은 다 틀린 소리이고, 다만 직장에 적합한 손을 만들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푸념하였다(東京帝大 朝鮮留學生同窓會, 『會報』 3, 1938, 121쪽).

23) 「學園을 떠나면서」, 『早大우리同窓會誌』 2, 早大우리同窓會, 1938, 46-47쪽.

야 하며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심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마지못해 순응해가던 청년세대 가운데 일부는 직접 그러한 심경을 겉으로 드러냈다가 처벌받곤 했다. 말하자면 일제의 내선일체론과 파쇼정책에 가장 빨리 적응해간 것도 청년세대였고, 그 논리적 허구성을 가장 강하게 반박하면서 민족운동에 나선 것도 청년세대였다.

II. 내선일체와 민족 말살에 대한 위기의식

1936년 미나미 지로 총독의 부임과 함께 주창되어 전시체제기에 줄곧 강요된 '내선일체' 논리는²⁴⁾ 서구식의 가치관과 문명으로의 동화라는 일반적인 식민지 동화주의를 넘어서 민족 그 자체와 민족성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⁵⁾ 일제 측에서는 내선일체는 '황국신민화', 즉 말 그대로 조선민족 전체를 천황의 국가인 제국 일본의 신하된 백성으로 삼음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서 양 민족의 근사성(近似性)에 비취볼 때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내선일체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본래부터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기초는 국체의 본의와 건국(肇國)의 정신에 바탕을 둔 내선일

24) 그 이전까지는 주로 '내선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25) “일본의 동화주의는 조선인의 ‘日本人化’를 내세웠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식민지인을 일본의 문명과 가치관에 동화시킨다는 ‘문명동화’가 그 하나였다면, 조선인과 일본인은 원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민족동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중략) 서구의 문명동화는 본래부터 ‘차별’을 전제로 하여 가치관의 동화만을 추구했던 것으로서, 말하자면 ‘베트남인의 프랑스인화’ ‘필리핀인의 미국인화’를 지향하지는 않았던 반면, 일본의 문명동화는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정책면에서 ‘차별적 동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강만길 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2004, 288-289쪽).

체의 필연성을 확신하는 데 있다. 대개는 확신이 없어서, 필연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어두움이 생긴다.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어도 필연의 법칙을 저지할 힘이 있겠는가. 하물며 일본인(内地人)과 조선인 사이에는 계통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고도의 근사성(近似性)이 있어서 일체화의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걸쳐 내선일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수많은 실례가 존재한다. 그렇다 해도 과거 역사가 다르고 현재의 사정 또한 반드시 같을 수는 없어서, 내선 간에 혼연일체의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설령 때를 두고 하더라도 방책을 택해야만 한다. (중략) 내선일체의 근본 전제는 황국신민화에 있다.²⁶⁾

그런데 아래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일제가 내선일체론을 펼칠 때 조선문화의 “단순한 일본화(内地化)”를 주장한 것만은 아니었다. 내선일체의 장단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신문화의 창조”의 창조를 이름으로써 대동아공영권 전체 문화생활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선일체는 신문화의 창조이다. 생활 감정의 일체화는 문화의 동일성이 그 불가결한 모태가 된다. 따라서 내선일체의 실현 방책으로서 문화정책이 중요함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반도 문화정책의 근본은 일본문화가 반도로 이식 배양되는 데 있다. 일본국민의 도덕을 반도로 철저히 침투시키도록 한다.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숭고함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의리인정(義理人情)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중에게 바르게 이해시켜서 그 성격을 도야하고, 그 정조(情操)를 순화(純化)함과 동시에 과학·언어·문예·취미·오락과 기타 생활양식의 전반에 걸쳐서 일본문화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반도에 우뚝하게 육성하여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내선일체의 문화정책은 반도 문화생활의 단순한 일본화(内地化)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조선 고래의 문화에서 고고한 멋스러움이 있으면 이를 일본문화권 내에 육성하고 조성하여 장구한 대륙적 정조(情調)를 섬세한 섬나라(島國) 문화에 보충한다면, 새로운 일본문화에 웅혼(雄渾)한 넓이

26) 『內鮮一體ノ理念及其ノ具現方策要綱』, 國民總力朝鮮聯盟 防衛指導部, 1941.6, 57-58쪽.

와 강인한 탄력을 더할 수 있는 근본이 됨을 잃지 않아야 한다. 내선일체의 문화 창조를 실현하는 것은 대동아공영권의 문화공작 수행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일본문화는 서점(西漸)하여 만주를 관통하여 중국(支那)에 보급됨으로써 전체 동양인 문화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²⁷⁾

이처럼 일제는 내선일체론을 주창하면서, 조선인에게는 이로 인해 조선 민족 및 조선문화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거꾸로 일본인에게는 당시 일각에서 거론되던 야마토(大和) 민족의 피의 순결이 오손(汚損)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했다.²⁸⁾ 또한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역설하면서, “조선민족이 진실로 일본민족과 일체가 되어 진실로 야마토민족·대일본민족이 된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있는 것”이니 조선 청년이 전선으로 나설 것을 강요했다.²⁹⁾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 청년세대가 ‘조선적인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복잡한 성격과 한계는 바로 이러한 내선일체의 주장 논리와 침략전쟁이라는 당면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일제는 수시로 과거 조선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일본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청년세대에게 일상적인 자극으로 다가왔다. 예를 들어 총독부 학무국장 오노 겐이치(大野謙一)는 징병제 시행, 즉 조선 청년 다수를 전쟁터로 동원하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선의 유가(儒家)가 각 시대에 사회질서를 평정해온 공적은 인정해야 하나 시대에 뒤처져서 새로운 자극의 기운을 저지한 죄도 있다면서, 유교든 불교든 처음 일본에 전한 것은 조선이지만 “일본은 점차 일본의 국풍(國風)에 순화융합

27) 위의 책, 58-59쪽.

28) 古川兼秀, 『內鮮一體ノ具現』, 國民總力朝鮮聯盟 防衛指導部, 1941, 25-31쪽 참조.

29) 秋山 中佐, 「皇軍の干城이 되어 같은 戰列로」, 白山靑樹 編, 『朝鮮同胞に告ぐ』, 大東亞社, 1944, 143-144쪽.

(醇化融合)하여 독특한 발전을 가져와, 한편으로는 발전과 진취상무(進取尙武)의 기풍을 함양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고정(保守固定)·퇴영언무(退嬰偃武)의 장애를 가졌다.”고 했다. 이렇게 일부러 한자성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는 조선의 청년 학도 역시 “자주독왕(自主獨往)의 정신”을 길러 일본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³⁰⁾

그런데 이러한 일제 측 주장과는 달리 청년들 가운데는 거꾸로 과거 역사를 들어서 내선일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누룩주식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이응열(李應烈)은 1941년 7월 하숙집 동료들에게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조선 육해군 대장으로서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격파하였는데, 과거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전쟁한 역사적 사실로 보아 내선일체는 지난하다.”면서, “현재 조선의 상태로는 독립할 수 없지만, 언젠가 시기가 오면 독립할 것이다. 우리 조선인은 확실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다가 검거되었다.³¹⁾ “조선에는 삼천년의 역사가 있고 풍속·습관이 있어서 독립국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결코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삿포로 토건그룹’의 다짐에서 알 수 있듯이,³²⁾ ‘조선적인 것’을 찾아내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당대 조선사회에서 최상위 엘리트그룹에 속한 일본 유학생들이 내선일체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41년 조선장학회에서 연성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현실의 각종 민족차별

30) 「教育より見たる朝鮮の將來」, 1943.12.26.(大野綠一郎 문서 중).

3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8, 국사편찬위원회, 2007, 246-264쪽.

32) 「在札幌朝鮮人民族主義グループ檢舉取調狀況」, 1945. 6, 『現代史資料』 30, 767쪽; 『昭和特高彈壓史』 8, 314-316쪽;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276-277쪽. 이 그룹은 삿포로시 북24조의 군(軍) 공사장으로 이입된 토공 인부들이 결집한 결사이다.

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야마토다마시(大和魂)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에게는 조선혼(朝鮮魂)이 있으므로 내선일체론 자체가 틀렸다고 보고 있다.

- 일본에서는 조선인을 어릴 때부터 일본인도 조선인도 모두 같다고 하면서 길러오다가 다 자라게 되면 차별을 붙이지 않는다.

(주오대학 법과 3년생)

- 일본사람에게 야마토다마시가 있다면 조선사람에게도 똑같이 조선혼이 있다. 지금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메이지대학 법과 1년생)

- 다만 사람이 오고 가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내선일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 ... 조선은 원래 다른 나라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었다.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취해서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고 속국 근성처럼 된 것이다. 금후는 이 근성을 버리고 훌륭하게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때 비로소 일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인도 조그마한 일에 차별을 두지 말고 보다 크게 자기들의 결점을 바로 고치고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일체는 되지 않는다.

(다이쇼대학 종교과 3년생)³³⁾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가 학교생활 등 일상에서 겪는 민족적 차별과 모욕감은 그들이 일제의 내선일체론을 부정하고 반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반발은 일본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공격, 일본어 상용(常用), 창씨개명(創氏改名) 등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청년세대가 '조선적인 것'을 찾아 나서면서, 급기야는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 독립의 길을 꿈꾸는 계기로도 작용했다.³⁴⁾

33)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213-1218쪽.

34) 예컨대 부산제2상업학교생 박상룡(朴相龍, 16세)은 교사로부터 조선인의 결점을 지적당하자 모욕감을 느꼈고, 이에 1941년 3월 12일 울산 백양사(白楊寺) 입구 바

일제 당국의 지속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창씨제도는 징병령 시행을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유언비어는 날이 갈수록 퍼져갔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공습이 가시화되고 일제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역으로 ‘내선 구별’의 논리를 담은 유언비어나 낙서로 바뀌어 퍼져가기도 했다. 연합국 측의 공습에 대한 두려움과 독립에 대한 희망이 현실화되어간 속에서 조선인은 오히려 일본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식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예를 들어 연합국 측의 잠수함 출몰에 관한 유언비어들 가운데 “양복을 입으면 일본인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조선인은 조선복(朝鮮服)을 입는다.”³⁵⁾와 같은 것은 당시 전국적으로 유포되어 있었다. 1930년대 이래 색복(色服)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 일제의 방향과 달리 일본인과의 구별을 위해 조선인은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 유언비어나 낙서 등 ‘불온연동’에는 창씨개명에 대한 비판이 특히 많았다. 당시 일제의 정책들 가운데 조선민족의 얼과 정신을 압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 것이 바로 조선어 사용 금지와 창씨개명이었다. 이는 청년세대 사이에서 ‘조선적’인 것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민족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이기도 했다.³⁶⁾ 개성에서 정미업을 하는 방의묵(方義默, 24세)에 따르면, 창씨제도를 통해 조선과 일본의 문화를 통합하려는 정책은 민족문화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조치로서 “민족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겨우 병합 40년에

위에도 ‘조립만(朝立萬)’, ‘조선만세, 독립’ 등의 낙서를 했다(鄭世鉉, 『學生抗日民族運動史研究』, 一志社, 1975, 495쪽).

35) 高等法院 檢事局, 『朝鮮檢察要報』 13, 1945.3, 30쪽.

36) 창씨개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산치럼, 2008, 제3부(153-183쪽) 참조.

일체화시키려 함은 무리”라는 것이다.³⁷⁾ 당시 낙서들 속에도 “창씨를 하지 말라,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름까지 빼앗길 것인가.”, “저주하자 미나미 지로를, 성씨를 바꾸게 한 놈을 때려죽이자. 성을 바꾼 놈은 짐승이다.”³⁸⁾, “일본인을 죽이자”면서 ‘내선별체(內鮮別體)’를 주장하는³⁹⁾ 낙서까지 등장하였다. 또한 “전국의 일본인(內地人)을 사형하자, 조선공산당단(朝鮮共產黨團)”⁴⁰⁾, “우리는 대한국민이다.”는 낙서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은 절대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져갔다.

또 다른 예로서 1940년 3월 13일 조선총독부 앞으로 보낸 투서 가운데는 ‘조선어 교수’, ‘씨(氏) 제도 중지’와 함께 ‘조선 풍습을 보호하라’는 내용이 있었다.⁴¹⁾ 함북 학성군의 최태섭(崔泰燮, 18세)이란 청년은 1942년 5월 길주공업보습학교 교장이 “국어 상용(常用)에 힘쓰자”라고 주의하자 “국어 상용이 뭐가, 조선어 상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전국적으로 ‘국어 상용 반대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직접 경성·경북·개성·군산·광주·경성(鏡城) 등의 중학교 5년생에게 엽서를 보내기도 했다.⁴²⁾ 이처럼 당시 청년 세대는 창씨정책과 아울러 조선어 사용 금지에 대해 민족성을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던 수전양부(須田良夫)라는 청년이 1943년 12월 8일

37) 「判決文」, 京城地方法院, 1941.11.27;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1942.3.6.

38) 『思想ニ關スル情報』 14;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첫 번째는 1941년 3월 창경원, 두 번째는 4월 30일 수원성 장안문 계단에서 발견되었다. 후자는 나석균(羅奭均, 21세, 무직)의 행위로 밝혀졌다.

39) 『思想彙報』 24,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40.9, 16쪽. 1940년 5월 6일 한상룡(韓祥龍, 18세, 무직)이 대구 달성동 주택 문에 한 낙서.

40) 『思想ニ關スル情報』 14;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1년 7월 23일 인천-경성 간 열차 변소에서 발견된 낙서.

41) 「不穩投書ノ事例」, 『昭和15年前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 朝鮮軍參謀部, 1940.8.

42) 「昭和17年刑公 第36號 判決」, 淸津地方法院, 1943.1.26, 『鮮內檢事局情報』, 1943, 464-469쪽.

일본 경시청장 앞으로 보낸 다음의 투서는 이를 더욱 잘 보여준다. 일본인은 아마토다마시(大和魂)를 가진 민족이라면서 황민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일본민족도 조만간 미·영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조선인이 진정으로 ‘황국신민’이 되어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대들 이른바 아마토다마시(大和魂)를 소유한 민족이며, 반성하라. (중략) 조선민족은 너희와는 달라서 그 개척이 2천 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략, 조선어 사용 금지 등 언급-필자) 어느 민족이나 자기의 말을 쓰는 것이 나쁘냐, 아니면 그것을 억제해서 말살하는 것이 아마토민족이 조선민족을 동화해서, 이른바 너희가 부르짖는 황민화라는 것인가. (중략, 도항증명서 건 등 민족차별 언급-필자) 우리 조선사람은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풍부한 미국이나 영국에 복종하는 것을 즐겁게 여길 정도이다. 미국·영국 운운은 고사하고 도쿠가와(德川) 3백 년의 쇠국시대로 돌아가 관부연락선도 없어지도록 또는 침몰하도록, 도조(東條) 군은 반성해라. 신에게 기원한다. 뉘라서 죽음의 싸움터로 가서 진심으로 활동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 (중략) 천황은 (이하 지극히 不敬한 기술-원문)⁴³⁾

사실상 당시 일제 당국도 단지 내선일체라는 관념으로 “천여 년의 장구한 특수한 역사 전통과 그 속에서 배양되어 온 인습적 사회·문화권”, 즉 조선의 민족적 습성이 말살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⁴⁴⁾ 다수의 조선인 역시 이 ‘동화 불가능’이라는 관점에 서 있었고, 특히 청년세대는 내선일체론에 입각한 여러 민족말살정책이 궁극적으로 조선민족과 조선문화를 멸망시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더 강했다. 창씨제도나 조선어 사용 금지에

4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230-231쪽.

44) 「第76回帝國議會說明資料(공통사항)」, 1940.12.

대한 공격과 반대가 청년세대의 '불온운동'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조선 동포여, 자각하자”라는 낙서가 자주 등장했으며,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는 낙서의 주체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청소년층에 의해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던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청년기의 세대적 공통분모, 즉 전시파시즘으로 인해 깊숙이 억눌려 있던 식민지 조선 청년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진취적 기상이 발현된 것이기도 했다. 청년들 스스로가 일본정신에만 물들거나 자포자기에 빠질까 우려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다짐이 낙서로 표출된 것이다. 청년세대의 위기의식과 청년층의 각성을 촉구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장소	내용	발견일시, 도구, 기타
용산공작주식회사 영등포공장 변소	잠자고 있는 삼천리 인종들아. / 共產首頭 田伯	1938년 3월 하순, 연필
경성부 청엽정 永明學塾 교원아동 공동변소	피 끓는 학생들아, 조선(하락-필자)	펜
1) 창경원 박물관 景春殿 북측 변소 2) 창경원 동물원 타조울타 리 서북쪽 변소	1) 大韓獨立 日本亡德 2) 무지한 일본아, 너희의 무력을 과신하지 말라 / 公正한 天神이 너희의 亡日을 정해놓았다 / 私信 청년독립운동자	1938.4.15, 연필
인천부 화방정 納涼小屋	아, 조선동포 자각하자 / 제2세 혁명 일으키자	1938년 6월경, 백묵
경성부 경정 楠本자동차공 장 변소	1. 노동시간 절대단축 / 2. 급고, 임금을 인상해라 / 3. 熱이 없는 국민은 멸망할 것이다 / 4. 過酷한 자 본주의를 향해 싸우자(제3계급자) / 5. 총독부에 폭 탄을 던지겠다(호외) / 6. 일본과 만주, 전쟁 중으로 갈라질 것이다 / 7. 황포 자본주의 무산자 / 8. 우리 조선청년들이여, 빨리 깨어나서 우리 조선청년들을 일깨우자.	1938년 8월경(3월과 5월에도 유사한 내용 발견됨), 한글·한자, 백묵,
경성부 元町 小林공작소 (군수품공장) 직공변소	일본은 싫다, 타력이 아니라 자력으로 나아가라, 조 선동포 여러분, 청춘남녀들아, 어둠속에서 헤매지 말 고 성공의 길을 밟자.	1938.9.7, 한글·한자, 백묵

장소	내용	발견일시, 도구, 기타
인천부 만석정 조선제강소 창고 담	사상적 십자로에서 방황한다.	1939.6.7, 백묵, 朴鎭昌(20세, 작공)
경성부 영등포정 용산공작주식회사 鑄鋼部 공장 출입구 벽	우리 조선동포들이여, 더욱 적게 깨우치자. ⁴⁵⁾	1939.7.30(7.28 작성), 백묵, 한글, 金元成(21세, 주강직공)
경성부 청엽정 효창공원 공중변소	우리 조선을 세우자 / 조선청년아, 싸워라	1939.8.30, 한글, 연필
경성 군수공장 용산공작주식회사 및 삼오제과공장 변소	"우리 조선동포여, 이제 자각하자, 일본인을 때리지 않고 일을 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피 끓는 젊은 청년아, 자각하자" 운운	1939년 말경
강원도 강릉의 학교 교실 흑판	일본정신을 기름과 함께 조선정신도 기르라, 일본배척 조선독립.	1940.3, 李光勳(18세)·豊村炳垠
강원도 양구군 亥安面 해안소학교 1학년생 교실 흑판	일본정신을 기름과 함께 조선정신을 길러 조선 독립, 일본 폐지하자.	1940.3.27 졸업식, 청색 백묵, 金昌煥(졸업생) 외 3명
충남 공주군 공주를 산성공원 雄心閣 표면 橫木	반도 청년들이여, 조선독립에 노력하자.	1940.4.7, 한자·한글, 연필
함남 장진군 신남면 白榮초집 벽	불량 청년이여, 타도 타도.	1940.4.30, 일어, 백묵
함남 장진군 신남면 金永道집 벽	지방 청년 단결의 때 / 우리의 생각, 우리의 피	1940.5.2, 일어, 백묵
함남 북청군 북청읍 공원 정자	조선독립만세 / 일본제국주의타도 / 일본인의 노예로서 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동포여, 다 각성하자 / 조선민족이여, 조선을 위해 투쟁하자, 朝鮮獨立生過次.	1940.5.5, 한자·한글, 연필
岡崎町 경성중공업회사 직공탈의장	젊은 청년들이여, 소년에게 독립의 길을 가르치자.	
파주경찰서 부근 공동변소	삼천리 강산 이 불쌍한 동무들이여. 총명한 정신을 차려라. 이때를 놓치지 말고 어서 바빠들자. / 朝鮮同胞(?同胞)	1940.8.18, 연필, 한글·한자. 李忠儀(23세, 농장 사무원) ※ 낙서 후 李相龍(19세, 경성공립직업학교 기계과 1년생), 俞宅鎭(22세, 신문배달)과 만세삼창
경성 광화문통 체신국 보협과 부속건물 변소	아, 우리 조선 반도 청년, 애석하게도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 언젠가 저 개 같은 놈들을 전멸시키고 우리의 太極星旗를 펴려일 것이다. ??(2자 불명-필자)독립	1941.3.18, 펜으로 쓰고 철필로 새김
金化 경춘철도자동차부 대합소 변소	조선인생은 공산당을 지켜야 한다, 충춘을 사랑해야 한다.	1941.4.20, 劉聖大(17세, 자전기 수선업)

장소	내용	발견일시, 도구, 기타
철도국 경성공장 선반주물부 직공변소	1) 開戰되었다. 조선인도 어서 머리를 들이밀자 / 日米戰이 일어나면 조선 독립인가 / 독소개전 조선독립만세 / 보라 제군, 청년 그리고 우뚝 서자, 피 흘리는 반도. 2) 일본망국, 일본멸망, 대한독립 등 / 반도인들아, 조선 고대의 사상으로 반일의 정신을 가지고 문명국인을 본받자, 이놈들아 / 일본정신을 따르는 반도청년들아. (그림 동반)	1941.7.22, 백묵·연필, 崔萬吉(25세, 선반공)
일본고주파중공업주식회사 성진공장 창고 옆 변소	무산청년에게 고함! 무산자 반도 청춘남녀여!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공산주의운동을 선동·선전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1942.5.1, 연필, 한글·한자, 金日虎(31세, 직공)
청진부립도서관 변소	2천 4백만의 조선청년이며, 우리 한국을 같이 일으키지 않겠는가, 일어서자 지금, 조선독립은 지금이다, 스스로 지원병이나 군대에 가는 놈은 아주 바보다, 인도를 보라, 크게 희생하면서 싸우는 정신을 보자, 우리도 일어나 조선을 위해 (이하불명-필자)	1942.9, 長本博公(자 동차 수리업)
일본 일본제철주식회사 輸西공장 協和寮 변소	조선독립 만세, 조선군인 많이 만들자 ⁴⁵⁾ 등	1943.2, 大河啓業(19세, 輸西공장 動力工員)
경성역 구내 1·2등 대합변소	2천 4백만민 반도민아, 때가 왔다, 猛進하자, 반도청년아, 覺醒로 命?前 반도?? / 대일본제국 천황폐하에, (총을 든 청년 그림-필자), 13도 청년들아, 조선국을 건설하라.	1943, 일본어·한글, 金聖龍(19세, 경성전기학교 토목부 본과 2년생)
경성보험관리소 1층 변소	반도 2천 6백만 동포여, 자 일어서라! 조선독립의 때는 왔다. 지금 와서 지원병이니 징병이니 하고 있다. 아야! 가련하도다.	1944.5, 金容昶(19세, 경성보험관리소 고원, 야간 덕수공립상업학교 2년생)

* 출처 : 변은진, 『파시즘적 근대체함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236-251쪽, 〈표 3-6〉에서 발췌

이 사례들 가운데 비교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1940년 3월 강릉의 한 학교 교실 칠판에는 “일본 정신을 기름과 동시에 조선 정신도 길러라, 일본 폐지, 조선 독립”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낙서의 ‘범인’으로 밝혀진 이광훈(李光勳, 18세)은 이를 계기로 동맹휴교를 일으키려 했다. 같은 내용의 낙서가 3월 27일 강원도 양구군의 학교 칠판에

45) 일본정신을 적게 깨우치고 조선정신을 기르자는 의미임.

46) 조선인도 군인을 많이 만들어서 군사력을 키워 독립과 건국에 대비하자는 의미임.

서도 발견되었고, 졸업생 김창환(金昌煥) 등의 행위로 밝혀졌다. 이들은 소학교 교사 홍순창(洪淳昌)의 영향으로 졸업 후에도 서로 연계하여 청년세대를 각성시키는 내용의 낙서를 수시로 한 것 같다. 홍순창은 수업 시간에 늘 신라가 일본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등의 고대사 왜곡을 비판하고 고려청자 등을 들어 조선문화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⁴⁷⁾

이와 같이 청년세대가 ‘조선적인 것’을 소환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워간 주된 현상은 바로 학교였다. 전시체제기에도 전국의 각급 학교에는 민족적 의식을 지닌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은밀히 민족말살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곤 했다. 1930년대 이후 학교 수는 크게 늘었으나 전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선인 교사를 다수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들 중에는 민족적 의식을 지닌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⁴⁸⁾ 당시 학생들의 저항에는 이들의 영향도 컸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민족적 교사들 역시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 참가했거나 그 영향을 받은 흔적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전시체제기에는 이전에 비해 ‘불온’한 발언으로 검거되는 교사도 훨씬 많아졌다. 예를 들어 1938년 사립 영생중학교 교사 송기수(宋基洙)는 개정된 조선교육령 및 지원병제도 등을 돼지 사육에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경북 광의공립심상소학교(光義公立尋常小學校) 훈도 임장수(林長壽) 등은 잡지·영화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경남 통영의 제1공립소학교 훈도 설갑수(薛甲秀)는 훈민정음 반포기념일을 기해 한글을

47) 「判決文(홍순창 등 6명)」, 京城地方法院, 1941.8.19.;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977, 1110쪽; 『思想彙報』 24, 15쪽.

48) 물론 여전히 일본인 교사가 다수 있었다. 졸업생들의 기억을 통해 1920~40년대 강경상업학교 내 일본인 교사 21명의 성향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이 가운데 4명 정도만 조선인에게 우호적이어서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한다(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229쪽, 〈표 5-6〉 참조).

가르치고 '불온문서'를 배포하는 등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었다.⁴⁹⁾ 또한 이른바 '교직원 사상사건'이 1942년 18건, 1943년 46건, 1944년(10월 말) 117건으로 일제 패망과 조선 독립의 시기가 가까워갈수록 격증했다.⁵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일제 당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학생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교사라고 판단하고 민감하게 대처했다. 교사 채용 시에는 “두뇌가 우수한 자보다도 내선일체 이념에 투철한 인물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⁵¹⁾ 급기야는 사법당국까지 나서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사상정화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 1) 우선 학교에서는 건전하고 진지한 순(純) 일본정신에 융합하는 교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여 그릇된 민족적 분위기를 제거할 것.
- 2) 교직원의 인선에서는 단지 학식·기예가 우수하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그 사상 상황에 대해 신중히 심사하고, 임명 후에도 일상 언동에 대한 감독자로서 적절한 사찰을 게을리하지 말 것.
- 3) 교직원 및 학생·생도들이 행하는 각종 행사는 형식적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참된 의의를 이해시키고, 또 모든 일상생활에 이를 응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도·장려하여 진심으로 일본정신의 체득에 전념하게 할 것. 특히 사범학교는 물론 기타 중등학교에서는 덕육(德育)에 가장 힘을 기울여 강제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해 깊은 사상적 훈련 방법을 고안해 내, 실천으로서 반국가(反國家) 사상이 대두할 여지를 없앨 것.
- 4) 불행하게도 범죄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직원·학생을 불문하고 학교 당국에서 속히 단속, 관계 관헌과 연락을 밀접히 해서 증거 보전과 검거 시기에 차질이 없게끔 협력하도록 유의해야 함. 단지

49) 『思想彙報』 18, 1939.8, 22-25쪽.

50) 「第86回帝國議會說明資料」,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 2, 209쪽.

51) 高等法院 檢事局, 『朝鮮刑事政策資料』, 1941, 75쪽.

자교(自校)의 명예만을 우선시하거나 감독자의 책임 귀속에만 매달려 사안의 호도에 전념한 결과, 도리어 이들 범인을 악화시킨다든지 혹은 그 사이에 증거를 마멸시켜 끝내 단속의 적정을 저해하는 등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엄히 타이를 것.⁵²⁾

일제는 조선인을 ‘완전한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의 조선인을 비국민(非國民)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조선인에게는 심정적으로 비국민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졌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로 다른 감정과 도덕, 생활방식을 지녀온 조선인에게 동화 및 내선일체는 곧 ‘민족 말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역사와 전통, 미래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주로 1920~30년대 일본식 교육을 받고 성장한 청년세대의 경우 ‘조선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조국이 아닌 타국의 전쟁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끊임없이 내선일체를 표방해도 실생활에서는 늘 민족차별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정체성이나 조선문화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조선이 독립국이였다는 사실이나 태극기 같은 것은 주로 우연한 기회에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조선적인 것’이란 ‘은밀한 발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적인 것’과의 조우는 이들로 하여금 ‘은밀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52) 高等法院 檢事局, 『朝鮮刑事政策資料』, 1942, 225-226쪽.

Ⅲ. ‘조선적인 것’ 탐색 노력의 성격과 한계

민족 말살에 대한 위기감, 내선일체론과 현실의 민족차별이 지닌 괴리감은 청년세대가 직접 독립을 위한 결사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데에도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한 예로 일본 규슈의학전문학교생 조주순(曹柱淳) 등은 “창씨제도는 민족독립 의식을 상실시켜 조선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의 내선일체론은 “반도인의 일본에 대한 반감을 완화시키려는 기만정책에 불과하니 조선민족의 진정한 행복은 조선독립에 의해서만 획득된다.”고 보고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했다.⁵³⁾ 이는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사할린으로 징용된 직공과 토공 중심의 비밀결사 지도자 장재술(張在述)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입으로는 무슨 일체(一體)니 일시동인(一視同仁)이니 표방하면서 조선 민족 대중을 착취 압박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조선민족을 무지몽매한 경지로 떨어뜨려 해매게 하고,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여 조선인의 민족성을 마멸하게 하려는 식민지 정책의 반영이라고 판단한다. 조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배제하고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민족 한 국가 이념에 입각하여 조선 독립을 완성해야 한다.⁵⁴⁾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에 각종 차별을 접하면서 민족의식을 자각해가던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은 “일본을 위해 일본교육을 받는 것이지 조선을 위한 조선적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⁵⁵⁾ 지극히 자연스럽게

53) 司法省 刑事局, 『思想月報』 100, 1943.1~2, 63-64쪽.

54)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381쪽. 이 그룹을 이끌던 경남 울산 출신의 장재술이 1942년 9월 검거되면서 자신이 민족운동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다.

55) 明石博隆·松浦總三 編, 『昭和特高彈壓史』 8, 太平出版社, 1976, 88-89쪽. 오사카의 흥국상업학교에 다니면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강시검(康時儉)이 1942년 12월

생겨났다. 지원병제나 징병제는 “조선이 독립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진해서 영합할 수도 있으나 동화정책은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교토의 유학생 임칠성(林七星)은 “민족성을 없애려는 정책은 민족의 정복이고, 인류 평화의 모순”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했다.⁵⁶⁾

이처럼 청년세대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궁극적으로 조선민족과 조선문화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일제가 조선인에게 내선일체론에 입각한 황민화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강하게 내세운 것은 일본민족에 비해 조선민족의 민도(民度)나 문화 수준이 낮다는 논리였다. 항상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교육받으며 성장한 청년세대는 이러한 비교 논리를 역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들이 ‘조선적인 것’을 발견하고 조선민족에게도 나름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우수한 민족문화가 있었음을 자각하면서, 이들은 일제의 논리를 반박하고 독립의 실현을 꿈꾸게 되었다. 일제가 조선인의 민족성을 폄하하고 비난한 것은 역으로 조선인이 그런 우매한 상태에서 벗어나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는 의지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이 퍼져가는 것에 대해 일제 당국은 무지몽매한 조선 민중이 그들의 주장을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잘못’ 받아들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조선청년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아마토다마시’에 동화되지 않고 ‘조선혼’을 지키는 것만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⁵⁷⁾

졸업기념간담회에서 발표하려던 원고 중에서, 그는 일제당국의 제지로 발표하지 못했으나 사전에 프린트하여 급우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56) 『北支事變ニ關スル情報』, 1937, 174쪽(일본육해군성문서 중).

57) 예컨대 교토의 리츠메이칸대학 전문부 학생 서영수(徐榮洙) 등은 “우리에게는 조선의 혼이 있어 일본의 혼과는 융합하지 못한다. 우리 민족이 오늘보다 더 일본에 동화되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멸망이다.”라고 했다(『독립운동사자료집』 13, 1330쪽).

청년세대는 즉자적으로 유언비어나 낙서 등으로 자신의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뜻맞는 청년들끼리 소모임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조선적인 것'을 탐색하고 서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독립과 건국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렇게 소규모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한 청년세대가 모두 한결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바로 조선인의 문화적 우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었고, 이를 위해 조선 민중을 문화적으로 계몽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민중들 사이에서 회의적이고 체념적인 생각을 없앴으로써 조선민족도 우수한 민족임을 각성시켜서 독립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어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민중에게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켜 문화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독립의 밑거름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 독립의 선결문제는 민족의 문화 수준을 향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년세대가 스스로 문화 수준을 높인 다음 상대적으로 무지한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⁵⁸⁾

소규모 비밀결사운동의 주체인 청년세대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노력은 바로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많이 '발견'하고 이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강점 이래 일제 당국이 조선인의 우수한 재능을 압박하고 저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보았다.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고 민족문화 압살정책을 편 것은 그들이 조선인의 문화적 수준이나 민족성이 우수함을 알고 있어서 역으로 그것을 억누르는 정책을 취한 것이라고도 생각했다.⁵⁹⁾ 일제의

58) 예를 들어 교토에서 유학 중이던 송몽규(宋夢奎)와 윤동주(尹東柱)는 “민족의식의 계몽은 문화력에 해야 하는 것”으로서 “조선 독립의 선결문제는 민족의 문화 수준 향상에 있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논의했다(위의 책, 1380쪽). 야마구치 고등학교 여우회(麗友會)의 투쟁방침에 “조선민족은 우수한 민족으로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같은 책, 1330쪽).

59) 1944년 11월 사할린에 징용된 토공 중심의 '북성조(北星組) 그룹' 논의를 보면, “일본인이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있다(『治安維持

식민통치는 기본적으로 “조선인에게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방침, 조선 고래(古來)의 문화들을 말살하는 방침, 조선인의 직업을 향상시키지 않는 방침, 기타 모든 점에서 조선인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⁶⁰⁾ 조선인에게 학교 입학에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조선인 지식계급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⁶¹⁾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이들은 조선민족의 문화와 재력(財力)이 모두 빈약해진 이유가 바로 식민지로 전락한 뒤 “총독정치의 문맹정책, 착취정책의 결과”이므로 먼저 “교육 설비를 완비하고 문화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⁶²⁾ 만약 조선이 일제에 강점되지 않았다면 문화 수준이 이처럼 ‘저열’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조선인 전체가 이를 자각하여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체제가 청년세대는 당대 조선민족의 문화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는 일제 측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위에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이 독립국이었던 과거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수성을 찾아 계몽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당시 청년세대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할 때 가장 긴급한 문제로 “민족 대중의 문화적 향상”을 설정한 배경에는 일제가 조선민족의 수준을 고의로 깎아내리고 이를 부풀려 선전하던 상황, 예컨대 조선인의 ‘결점’을 들춰내어 무조건 시정할 대상으로 주장하던 논리 등의 영향이 있었다.⁶³⁾ 이렇게 청년세대의 인식 형성은 민족문

法違反(民族獨立)被疑事件檢舉に關する件』, 1945.6.7., 일본육해군성문서 중).

60) 사이타마중학교 자숙회(自肅會)의 논의(『독립운동사자료집』 13, 1221쪽).

61) 고선웅·김해중·길혁주 등의 논의(『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273쪽).

62) 大邱地法, 「治安維持法違反等被告事件豫審終結決定書寫送付の件」, 1942.12.15, 『鮮內檢事局情報』, 1943, 156쪽.

63) 앞서 보았던 송몽규와 윤동주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문화의 유지 향상에 힘써 민족적 결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독립운동사자료집』 13, 1378·1380쪽).

화에 대한 일제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역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선의 과거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청년세대가 막연하게 '조선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노력할 때, 이들은 즉자적으로 일제가 일본 민족과 문화의 우수성을 주창하던 논리, 즉 다분히 국가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논리를 '차용'하는 한계를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일본문화와 조선문화, 각각의 민족성을 비교하면서 조선 민족과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면에는 조선민중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여 일제가 주장하던 '노예적 근성 등의 결점'을 극복하면 조선민족도 일본민족처럼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게다가 청년세대는 스스로 민중을 계몽할 만한 '지도자로서의 인격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습득한 지식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대체로 일본식, 즉 대단히 전체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교육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⁶⁴⁾ 심지어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동화정책을 두고 일본사회 내에서 '피의 순결 오손론'이 등장한 것처럼, 우수한 조선민족도 "피의 순결을 보존"해야 한다거나,⁶⁵⁾ 내선(內鮮) 간의 결혼은 '민족성 보유'를 위해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⁶⁶⁾ 이들은 조선에도 '영웅'이 출현해야 한다고 느꼈고 역사 속 위인들을 본받고자 했으며,⁶⁷⁾ 외국의 위인전, 특히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도

64) 이에 대해서는 변은진,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Ⅶ-1-2), 497-505쪽 참조.

65) 오사카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고학생 강태선(21세)의 주장(『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254쪽).

66) '도야마고 조선인학생그룹' 최정률(崔定律)의 주장(『思想月報』 98, 1942.9~10, 182쪽).

67) 오사카의 고학생그룹인 충성회(忠誠會)에서는 "이성계·이순신·왕인·안중근 등을 현창(顯彰)할 것", "비스마르크·히틀러·나폴레옹 등 세계영웅전을 연구 토의하여 청년 분기(奮起)의 자료로 삼을 것" 등을 방침으로 삼았다. 또한 회원 중 이퇴계의

크게 감명받았다.⁶⁸⁾ 이들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간디나 장제스 등을 모두 동렬에 놓고 칭송한 이유는, 어쨌든 모두 자민족을 위해 앞장서 지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들이 중시했던 민중에 대한 문화적 계몽에는 다분히 ‘계몽’ 자체가 지닌 한계, 즉 지나치게 정신적 영역에 치우친 국수주의적 성격이 내재해있었다. 제국주의 논리의 합리화 과정에서 나온 사회진화론적 시각, 특히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온존해있는 경우가 많았다.⁶⁹⁾ 이러한 논리로 세계와 역사를 보면서 다분히 정신주의나 도덕주의에 빠져드는 경향도 있었다. ‘도야마고(富山高) 조선인학생그룹’의 최정률(崔定律)은 “일본은 강대하고 또 일본인은 윤리관이 있으나 우리 민족은 그것이 부족하다.”면서, “역사는 약육강식의 자연적인 경쟁 무대가 아니다. 단순한 경제력이나 무력은 역사적 실제성이 아니며, 도덕이야말로 역사적 실제성이다. 도덕이야말로 국가 흥망의 원인이다.”라고 보았다.⁷⁰⁾ 부정하려 해도 이들의 사고 속에는 이러한 편린들이 내재해있었고, 이는 항일 저항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자손이라는李大敎(李大教)는 일본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가 메이지유신의 정신과 인물을 양성한 것처럼, 졸업 후 국내에 이를 본받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독립지도자를 키우겠다고 계획하기도 했다(『昭和特高彈壓史』 8, 149-153쪽;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368-1372쪽).

68) 청년세대가 어떤 서적을 많이 접했는지는 변은진,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IV-4-1)-(2), 406-412쪽 참조. 최근 히틀러의 책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나왔다(신주백,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대한 한국에서의 專有(1932~현재)」, 『東方學志』 191, 2020).

69) 춘천군청의 고원 이홍래(李鴻來)는 “이 세상을 지배할 자는 힘이다. 이 힘 앞에는 신도 종교도 고개를 숙인다. 세상의 열패자는 그 패자가 된 원인을 근절해서 힘을 얻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독립운동사자료집』 12, 1114쪽).

70) 『思想月報』 98, 1942.9~10, 185쪽;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339쪽.

맺음말

1930년대 이래 식민지 조선사회의 몇몇 지식인이 전개한 조선학운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선적인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제강점기 내내 있어 왔다. 특히 일제가 내선일체론과 일본식 동화주의에 입각한 민족말살정책을 강하게 펼치던 전시체제기에 이러한 노력은 더욱 은밀하게 확산되었다. 그것은 일제 강제병합 이후 태어나 1920~30년대 일본식 교육·교화체계 속에서 성장한 청년세대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본문을 통해 청년세대가 ‘조선적인 것’을 탐색하게 된 배경과 이유로서 전시체제기 청년세대의 특수성과 일제 청년양성 담론 사이의 괴리, 이로 인해 청년세대가 내선일체론과 민족 말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은밀한 저항’을 지속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로 일본식 논리를 차용하게 됨으로써 그 안에 복잡한 성격이 내재된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민족주의적 성격과 동시에 파시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평가되어왔듯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시기 청년세대의 ‘조선적인 것’ 탐색 노력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은 동시에 드러났다.

전시체제기에 일제는 내선일체의 근거로 일본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조선민족의 저열함을 주장했고, 이를 자각한 청년세대는 민족의 계몽을 통한 ‘조선문화의 향상’을 중시했다. 이를 ‘독립의 선결문제’로, 또 독립 이후의 국가 경영을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내면에는 당시 일제 측 논리의 영향 등으로 인해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적 성격만이 아니라 국가주의·국수주의·전체주의·군국주의 등 다양한 성격과 한계가 그 안에 배태되었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파시즘체제 아래서 이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표출되었지만, 일제가 물러간 뒤의 새로운 상황에서 이 내재된 복잡한 성격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논문투고일: 2021.12.11. 심사완료일: 2022.1.10. 게재확정일: 2022.1.18.)

참고문헌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8, 200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2/13/별집3, 1977~1978
- 국가기록원 소장 「판결문」들
- 高等法院 檢事局, 『朝鮮刑事政策資料』, 1941/1942/1943
- 高等法院 檢事局, 『朝鮮檢察要報』 13, 1945.3
-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18/24, 1939.8/1940.9
- 高山秀雄, 「内地在留學生指導に關する意見書」, 1941.1.7
- 國民總力朝鮮聯盟 防衛指導部, 『內鮮一體ノ理念及其ノ具現方策要綱』, 1941.6
- 東京帝大 朝鮮留學生同窓會, 『會報』 3, 1938
- 明石博隆·松浦總三 編, 『昭和特高彈壓史』 6~8, 太平出版社, 1976
- 白山青樹 編, 『朝鮮同胞に告ぐ』, 大東亞社, 1944
- 司法省 刑事局, 『思想月報』 98/100, 1942.9~10/1943.1~2
- 尹昌業, 『實踐上から見た青年團組織と經營』, 青年團社, 1939.6
- 荻野富扶 編,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12, 不二出版社, 1992
- 田中徳太郎 述, 『朝鮮人ノ思想ト性格』, 朝鮮軍司令部, 1943.4.20
- 早大우리同窓會, 『早大우리同窓會誌』 2, 1938
- 朝鮮獎學會, 『夏季鍊成會狀況』, 1942.6~8
- 朝鮮總督府 情報課, 「朝鮮事情資料 第4號 '鍊成する朝鮮」, 1944

〈연구서〉

- 강만길 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2004
-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산처럼, 2008
- 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엮음, 『1930년대 조선학운동 심층연구』, 선인, 2015
- 민족문화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화담론』, 소명출판, 2007
- 변은진,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선인, 2013
- _____,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 - 독립과 해방, 건국을 향한 조선민중의 노력』,

선인, 2018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푸른역사, 2017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鄭世鉉, 『學生抗日民族運動史研究』, 一志社, 1975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중등학교 입학부터 취업까지』, 푸른역사, 2021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은닉 대본』, 후마니타스, 2020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寺崎昌男・戦時下教育研究会 編, 『總力戰體制と教育-皇國民‘鍊成’の理念と實踐』, 東京大出版會, 1987

山口定, 『ファシズム-その比較研究のために』, 有斐閣, 1979

〈연구논문〉

신주백,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대한 한국에서의 專有(1932~현재)」, 『東方學志』 191, 2020

허은, 「20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과 식민지주의」, 『한국사연구』 150, 2010

[ABSTRACT]

The background and character of the efforts of the younger generation to explore 'Joseon-style things' during World War II

Byun, Eun-Jin

This article reveals the background and reason behind the young generation's search for 'Joseon-style things' in World War II. During this period, the gap between the specific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discourse of youth cultivation on Japanese imperialism, which rather aroused a sense of crisis over Korean Nation Eradication, and in the process of exploring 'Joseon-style things', the borrowing of Japanese-style logic mainly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complex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such as totalitarianism and militarism as well as nationalism. Just a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evaluation of the Joseonhak Movement in the 1930s contained both nationalistic and fascist characteristics, even if there was no direct influence, the efforts to explore the 'Joseon-style things' developed by the younger generation during the wartime system also revealed these two characteristics. During the wartime system, some of the young generations who were aware of this emphasized 'the improvement of Joseon culture' through the enlightenment of the people because Japanese authorities always insisted on the excellence of Japanese people and culture as the basis of Assimilation of both. In other words, it was recognized as 'a priority

task for independence' and an important thing for state management after independence. However, this emphasis on improving the cultural level of the Joseon people was to include both positivity and negativity inside the perceptio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logic at the time.

Key words : Wartime system in World War II, the younger generation, Joseon-style things, Joseonhak Movement, Korean Nation Eradication